

社說

희망을 심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세계의 변화와 대학인의 할일

가을이 왔다. 상큼한 가을 바람이 여름에 달아놓았던 대지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를 자연의 섭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난 여름의 불꽃처럼 마음을 정리하고 가을의 결실을 어떻게 맺을 것인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다.

이제 한학기만 남은 가을을 나설 4학년 졸업반의 취업을 위하여 거요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졸업예정자들은 이제 얼마남지 않은 대학생활의 충만한 마무리를 위해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는데 혼신의 정열을 바쳐야겠다.

또한 대학의 얼굴에 띄워야 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 부끄럽게 생각해야겠다. 입시부정, 연금 격차의 문제 사제지간의 갈등문제 등은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대의 양심이야말로 대학인 모두가 심어 부끄러워 생각하고 끊임없는 반성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국민대중의 신뢰와 지지 확보해야 -통합야당에 바란다

처음 여소야대로 출발했던 6공화국의 정가를 살펴보면 두번의 큰 지지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당통합과 지난주에 있었던 야당통합이 바로 그것이다.

3당통합은 반인원적이고 반역사적인 실책이었다. 이러한 이변의 야당통합은 오랜 가뭄속에 내린 단비로 오랜 국민의 숙원을 풀어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여소야대의 정국은 집권당이 야당들과 국민의 눈치를 살피면서 민주화와 개혁의 요구를 마지못해 따르던 시기를 창출해 한국정치사의 밝고 화려한 한 장으로 기록됐다. 이는 광우의 2백여 명을 기쁘게 집권한 5공의 수뇌들과 독재정권과 결탁해 민중을 수탈한 독재체제의 책임자들이 텔레비전에 생방송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청문회를 가늠해 봤다.

그러나 자칭 정통야당임을 주장하던 민주당과 유신정권의 연속인 공화당이 군부정권의 출기적인 민중당과 합침으로써 한국역사의 찬란한 금자탑을 세웠던 여소야대의 구조는 깨졌다. 이로써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갈망하던 민족의 염원은 몇몇 권력자에 의해 짓밟히고 노동자·농민·학생의 대량구속을 가져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현재까지도 하루 평균 1.2명의 노동자가 감옥에 갇히고, 하루동안 노동자 6명이 산업현장에서 숨겨져 '산재왕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를 아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현재까지도 하루 평균 1.2명의 노동자가 감옥

폐나 자본주의의 승리를 하는 이분 법칙 논리를 견뎌야 한다. 공산주의의 한계 문제를 직시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곧 자본주의의 모순을 정당화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없애는 것도 아니다. 어느 사회나 모순과 갈등이 있으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며 남의 잘못이 곧 자신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모두 그동안 익숙해 있던 이데올로기의 허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겠다.

통일정책 또한 외형적·정략적 차원에서 진행시킬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장기적 구도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모두 자세하게 보아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사회가 희망을 심어 주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법제도를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소외받고 속박 당하며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야 된다면,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회라면 그사회는 어딘가 잘못된 사회이다. 그리고 그 사회는 끝내 버팀목이 없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제조업에서 사람이 떠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내집마련의 꿈을 가질수 없으면, 이사회와 기층민들이 경제, 월세 값은 마련할수 없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실용한 사람이 없는 사회, 까닭없이 불안을 느끼야하는 정치, 모든것을 믿을수 없는 사회는 하루속히 치유되어 모든 사람이 정당한 댓가를 받는 건강한 사회인가를 다시 살피자.

결실의 계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성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가을을 맞이하자.

오는 17일 남·북한 UN동시가입을 앞두고 남북관계와 남북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정부의 대결구도가 암묵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AEA)의 핵사찰 거부, 일본의 북한 국가인정, 전 북한의교관 일영환 씨의 귀순 등 북한관련 보도들이 주말로 가까와지면서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일간지가 14일자 사실에서 제1차 북한 핵사찰 거부에 대한 비난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지난 5월 귀순한 고영환씨 사건을 이제 발표함으로써 북한 핵사찰 거부와 함께 북한의 핵보유 실재를 굳혀주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는 이번주 화요일 역사적인 남북 UN동시가입을 앞두고 역사가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터뜨려지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대결구도와 UN가입전 국제무대에 서 도덕적,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실상 이런 보도관행은 남북외교관계의 변화가 주효이슈로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대결구도를 더욱 굳히는 결과밖에 낳지 않는다. 조선 4대 일간지들이 4개월전 귀순한 고영환씨에

대한 대결구도와 UN가입전 국제무대에 서 도덕적,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실상 이런 보도관행은 남북외교관계의 변화가 주효이슈로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대결구도를 더욱 굳히는 결과밖에 낳지 않는다. 조선 4대 일간지들이 4개월전 귀순한 고영환씨에

대한 안기부 발표를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북한경제의 고립성·경직성과 핵보유 사실을 강조하는 냉전적 논리를 갖게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일조하고



UN 가입 앞둔 언론의 구태의연한 보도

대한 안기부 발표를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북한경제의 고립성·경직성과 핵보유 사실을 강조하는 냉전적 논리를 갖게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일조하고

대한 안기부 발표를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북한경제의 고립성·경직성과 핵보유 사실을 강조하는 냉전적 논리를 갖게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일조하고

벼랑 끝에 몰린 나라살림

- 92년도 예산책정과 정부의 경제 운영 체제에 대해



I. 경제현안의 심각성

지난주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각 경제부처들은 물가, 국제수지 등 현안문제를 놓고, 국회 총점검토에 돌입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절제에 부응할 만한 산뜻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였다.

우리경제는 현재 88억불이라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통화증가를 또한 올해 역대 목표인 17%선에 육박하고 있다. 거기다 주택 2백만호 건설이라는 부담이 안겨져 주택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이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는 바람에 단숨에 시멘트수출 세계 2위에서 수입국으로 돌변하였다.

II. 각부처 경제난국 처방

기획원 관계자는 "두번에 걸친 건설경기진정대책과 내수경제위주의 총수요관리 대책을 추진중인 상황으로서 이제 2~3개월만 지나면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기에 통화긴축 등 선명된 정책 조건전환이 가능할 경우 자칫 국내경기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원은 국제수지 등 일부 총량지표를 그동안 지나치게 낙관했던 점을 시인하면서 종합대책 내용은 중요전환이 수렴돼 몇가지 소비억약방안을 첨부하는 선이 될 것으로 보았다.

것은 오히려라는 것이다. 그러나, 추정예산을 제외한 본예산은 24% 이상 늘려잡은 초팽창 산재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크게 쏟아지고 있다.

III. 경제대책과 팽창 예산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 각부처마다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국 총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데도 불합치 관리 하는가에는 의견의 차이가 현저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총규모를 줄일수 없고 총통화 증가율도 현재의 17~19%에서 더 줄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경제성장률의 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정부는 이와관련 울 하반기 성장률을 8.5%(올해 전체 8.8%), 내년에는 8%로의 하향조정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91년 본예산대비 24.2% 증가한 33조5천500억원규모의 초팽창예산을 내놓았다. 이 팽창 예산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추정 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세입이 증가를 세입에 계상했다고 전제, 올해 총예산과 비교하면 내년 예상 총예산은 6.8%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91년 본예산과 내년예산을 비교하는

통령과 경제장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의식의 차이, 근본적 이해의 차이로 인한 것일 것이다. 국민에게 과소비를 자제하라, 임금인상을 한 자제하라 등 경제학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현 경제위기에 대한 상황판단의 차이, 심각성의 차이, 경제위기의 발생요인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의식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눈'은 결코 틀어질수 없다. 그것이 정부의 굴절된 '눈'으로 결정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정부는 물가폭등과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을 울바라 바라보아야 한다. 현시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은 결국 예산삭감제로 돌아가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현황을 지나쳐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국민의 관심이 야권통합과 맞물려 초팽창예산에警惕이 가해질 것이 확실시 되지만 국민들은 정치적 합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예산의 삭감보다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경제체제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두가지 '눈'으로 보는 경제정책의 오류를 극복될 것이다.

(이지환 기자)

물가상승·국제수지 악화로 경제 '핑크' 선심성 공방속 팽창예산 삭감 예상

해야 한다는 데도 불합치 관리 하는가에는 의견의 차이가 현저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총규모를 줄일수 없고 총통화 증가율도 현재의 17~19%에서 더 줄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경제성장률의 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정부는 이와관련 울 하반기 성장률을 8.5%(올해 전체 8.8%), 내년에는 8%로의 하향조정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91년 본예산대비 24.2% 증가한 33조5천500억원규모의 초팽창예산을 내놓았다. 이 팽창 예산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추정 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세입이 증가를 세입에 계상했다고 전제, 올해 총예산과 비교하면 내년 예상 총예산은 6.8%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91년 본예산과 내년예산을 비교하는

통령과 경제장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의식의 차이, 근본적 이해의 차이로 인한 것일 것이다. 국민에게 과소비를 자제하라, 임금인상을 한 자제하라 등 경제학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현 경제위기에 대한 상황판단의 차이, 심각성의 차이, 경제위기의 발생요인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의식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 관심이 야권통합과 맞물려 초팽창예산에警惕이 가해질 것이 확실시 되지만 국민들은 정치적 합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예산의 삭감보다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경제체제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두가지 '눈'으로 보는 경제정책의 오류를 극복될 것이다.

(이지환 기자)



21세기 건설문화를 이끄는 유망 크리에이션

무한한 가능성의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그들의 역량이 가능성을 이루는 든든한 바탕이 되었듯이 극동건설은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창조·도전·진취성으로 근 반세기동안 국내외 건설문화의 어제를 오늘을 이끌어 왔으며, 풍요로운 21세기를 창조하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크게 키워주는 극동건설과 함께 더 큰 미래로 패기있게 도전하십시오.

용기있는 도전만이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탐구정신으로 건축, 미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다면—
도목기사 출신으로 세계 최초로 북극점을 정복한 피터리—
블국사를 설계, 건축한 진취적인 우리 선조 김대성—

●추천내용: 91년 10월
모집분야: 1. 인문계: 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2. 이공계: 토목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환경공학, 건설학
모집지역: 1. 모집부문의학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92년 2월 졸업예정자
2. 196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해외여행에 걸려사유가 없는자
모집인원: 100명 (예정)
전형방법: ●구술시험 - 면접 - 인·적성검사
※구술시험: 전공, 영어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당사 소정양식)
2.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3.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4. 추천서 (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
기타: 1. 추천용지사는 전학년 성적 B 학점 이상인자로서 추천의뢰 학과 한함
2. 자격·면허소지자 및 대학원 출신자 우대
*당 그룹은 자사 개별 공개 채용임.
*문의처: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내 극동건설(주)인사부 TEL: 273-1141 교 211-213

極東建設株式會社